



1940-1960년대, 이 시기 문학은 민족문학이 확립-확장되는 시기이다.

조국 광복과 남북 분단 그리고 전쟁의 비극과 전후 복구의 시대로
식민지 시대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제기된 때이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문인으로 사실주의 동시의 새 지평을 연 시인 권태응과
풍부한 우의성(寓意性)과 상징성의 작가 염재만 그리고
거침없는 풍자와 해학의 달인 신동문이 있다.

금서(禁書)의 사회학과 외설의 정치학을 표현한 작가, 엄재만

검열 주의와 맞서서 고군분투한 끝에 마침내

작가의 기본권인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한 작가



『반노』가 출판되자 소설의 외설성 논란이 일어 엄재만은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7년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판례를 통해 군사문화의 검열 주의와 맞서서 고군분투하여 마침내 작가의 기본권인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5·16 군사 쿠데타 이래 문학적인 명분주의와 자기 검열에 찌든 우리 문단에서 맨 먼저 실지 회복의 전과를 올렸던 작가로 평가된다.

그는 『반노』(1969.4)를 시작으로 『느미』(1978.11), 『넝쿨』(1984.3)과 『여자가 웃을 땐 배꼽도 웃는다.』(1992.9), 『엄마 없는 하늘 아래』(1987.9) 등과 같은 장편소설, 창작집과 아동소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베스트셀러인 『반노』, 『느미』, 『엄마없는 하늘 아래』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당시 인기를 끌었다.

01 염재만의 출생과 성장기

염재만은 충청북도 음성(陰城) 출생으로 호는 평곡(平谷)이며 본관은 파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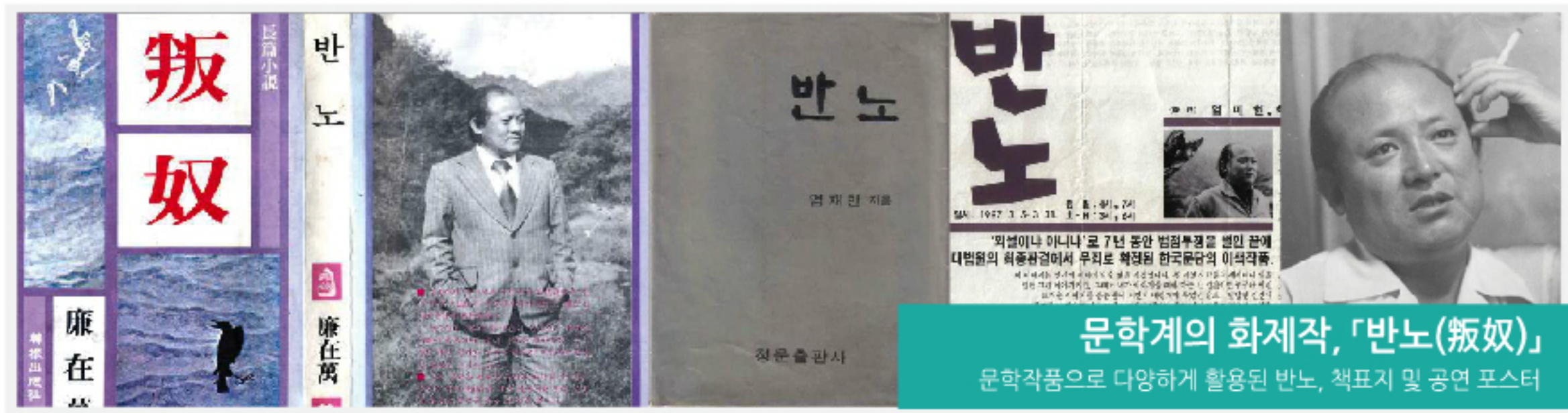
그의 나이 20세인 1953년에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959년에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서라벌예술대학 재학 중에 창작실기 수업에서 여러 편의 우수작품을 발표하여 당시 지도 교수였던 안수길(安壽吉)의 촉망받는 제자로 인정받았다.



02 장편전작소설 『반노(叛奴)』로 문단 데뷔

대학졸업 후 군에 입대, 군복무를 마치고 제천금융조합, 경기도청, 수원상공회의소 등의 직장생활을 거친 후 1968년에 문협 수원지부 이사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969년의 문제작이 된 장편전작소설 『반노(叛奴)』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 소설집이 출판되자 소설 내용상 외설성이 논란이 되어 1970년 외설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7년의 재판 과정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반노』중 13장에서 14장이 "음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문학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그 작품 중 어느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논할 수 없고 그 작품 전체와 관련지어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인간의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함으로써 새로운 자아(自我)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매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음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로 문학의 외설성 시비에 대한 획기적인 판례가 내려졌다.



03 활발한 활동으로 작가로서 명성을 얻음

『반노(叛奴)』가 법정 시비로 큰 화제가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졌다.

1983년 - 1987년에는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와 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이후 1989년도에는 소설가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다음해인 1990년에는 '말뚝에 절하고'로 제27회 한국문학상 수상하며 작가로서 명성이 높아졌다. 엄재만은 1991년에 소설가협회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작가연보

- 1953 충주고등학교 졸업
- 1959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 1968 문협 수원지부 이사
- 1969 '떡' 및 '반노'로 문단 데뷔
- 1971 E.I.E 이사
- 1975 한진출판사 주간
- 1981 문인협회 감사
- 1983 제2회 신문예협회상 수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 1984 문인협회 이사
- 1989 소설가협회 사무국장
- 1990 '말뚝에 걸하고'로 제27회 한국문학상 수상
- 1991 소설가협회 상무이사
- 1992 4월 한국신문예협회 부회장
- 1993 한국문예학술저작협회 이사, 제21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